


문의	정보고객지원국	과장 전현진	042-481-5460
	정보고객정책과	서기관 김곤희	042-481-5160
 2019년 12월 26일(목) 배포(09:00)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건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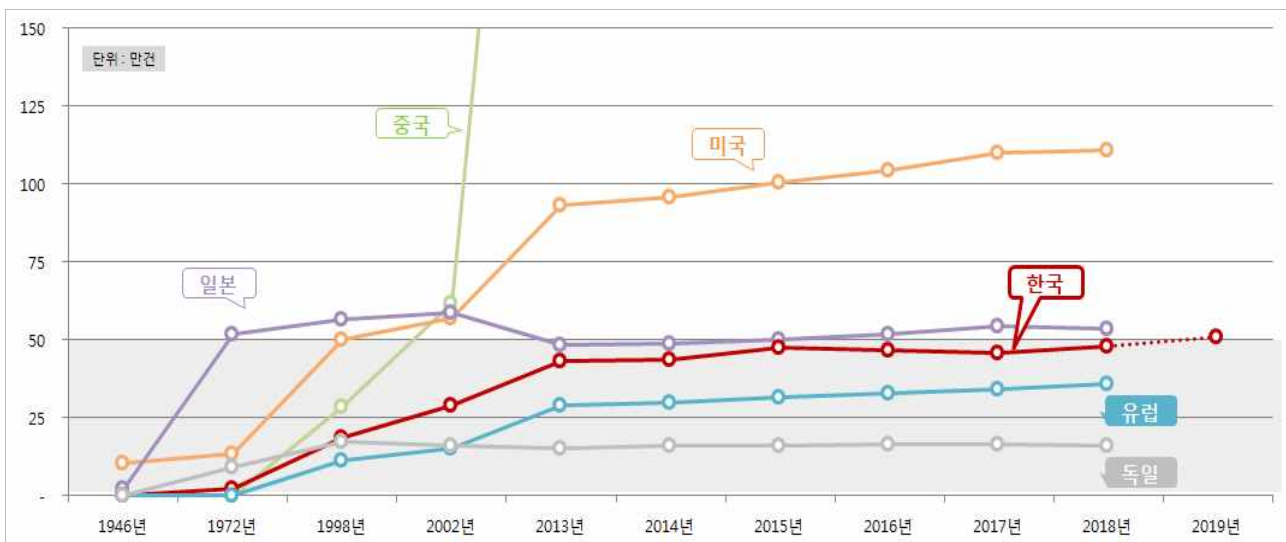
- 73년 만의 성과로 일·미·중에 이어 세계 4번째, 중소기업이 주도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올해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26일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이는 1946년에 대한민국 첫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에 달성한 것으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이다. [표1 참조]

* ① 일본 1972년(87년 소요), ② 미국 1998년(208년 소요), ③ 중국 2002년(17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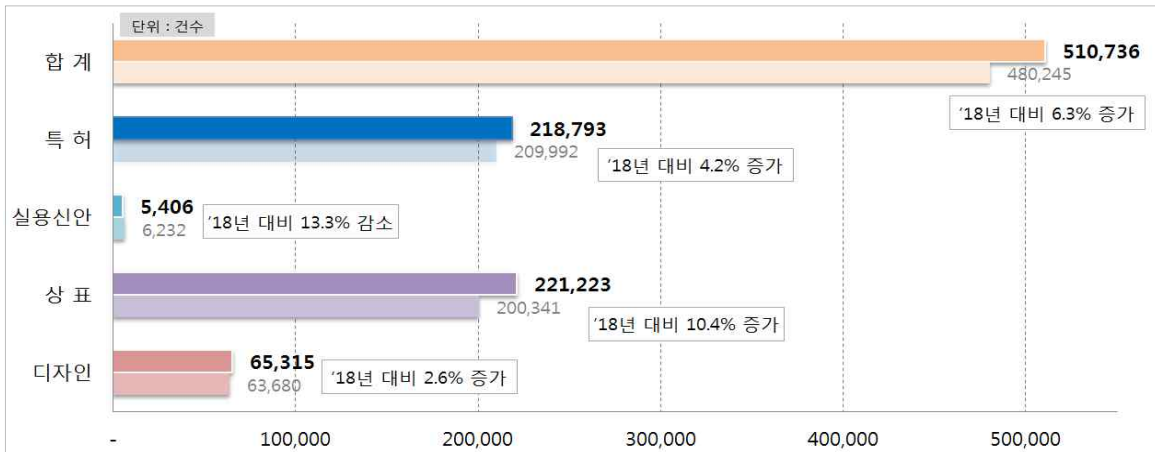
< 세계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1946년~2019년) >



※ 중국의 연도별 출원건수(만건) : ('01) 46 → ('02) 62 → ('12) 367 → ('15) 558 → ('18) 1,146

- 금년 말(12. 31) 기준으로는 작년에 집계된 480,245건 보다 6.3% 증가한 51만 여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참조]
- 권리별로 살펴보면, 상표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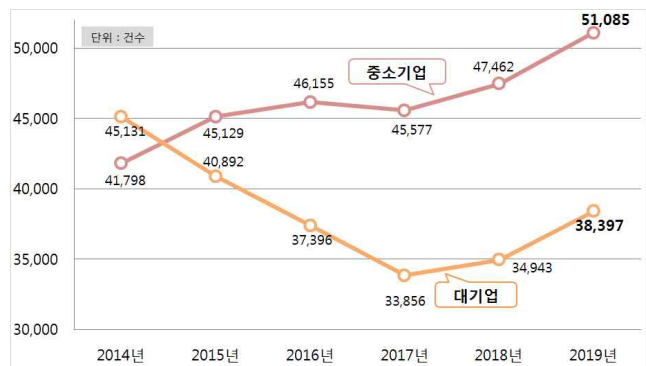
< 2019년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예상건수(2018년 대비) >



- 한편, 2016년부터 소폭 감소하던 특허 출원이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올해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희망적이다.
-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해 중소기업이 이번 50만건 돌파를 주도했고, 개인, 대기업도 각각 7.9%,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3 참조]
-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1만건), 이어서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의 순으로 출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 출원인 유형별 특허출원 건수(최근 6년) >

'15년부터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미국, 일본 등 G7 국가의 경우 특히 성장과 GDP 성장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¹⁾, 우리나라도 그간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70년 ~ 2018년 한국의 GDP와 특허출원 간 상관관계 그래프 >



- 따라서, 올해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달성하는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규제 등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확실한 미래투자로 보고 있다.”며,

- “앞으로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하여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산업재산권 출원 상세 현황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김근희 서기관(☎ 042-481-51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미국, 일본 등 G7 국가에서 특허건수가 1%p 증가할 때마다 1인당 GDP 성장률도 0.65% 높아져 특허성장이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됨(MPRA Paper, 2011).

□ [표 1] 세계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1972년~2018년)

(단위 : 건)

구분	1972년	1998년	2002년	2010년	2017년	2018년
일본	517,879	564,833	584,652	498,208	544,878	532,855
미국	134,268	500,697	567,987	800,747	1,098,655	1,106,310
중국	-	286,675	616,967	2,278,850	9,260,739	11,461,702
한국	22,611	185,209	290,792	362,074	457,955	480,245
유럽	-	113,659	151,341	271,640	340,847	357,293
독일	91,532	173,072	161,711	156,870	164,278	161,879

※ 실용신안 포함(미국, 유럽은 실용신안 제도가 없어 미포함)

□ [표 2]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현황(최근 6년)

(단위 : 건, %)

권리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상치)	(증감률)
특 허	210,292	213,694	208,830	204,775	209,992	218,793	4.2%
실용신안	9,184	8,711	7,767	6,809	6,232	5,405	▲13.3%
디자인	64,360	67,954	65,659	63,453	63,680	65,315	2.6%
상표	160,663	185,443	181,606	182,918	200,341	221,223	10.4%
합계	444,499	475,802	463,862	457,955	480,245	510,736	6.3%

□ [표 3] 우리나라의 출원인 유형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최근 6년)

(단위 : 건, %)

권리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상치)	(증감률)
중소기업	104,472	120,854	123,425	122,031	129,423	142,939	10.4%
외국인(법인·개인)	62,605	62,738	62,395	62,581	67,583	66,839	▲1.1%
개인	145,762	157,912	151,065	151,083	161,457	174,135	7.9%
대기업	59,650	57,293	52,492	47,079	47,775	51,000	6.8%
중견기업	28,255	27,446	25,346	25,414	24,378	25,025	2.7%
기타	43,755	49,559	49,139	49,767	49,629	50,798	2.4%
합계	444,499	475,802	463,862	457,955	480,245	510,736	6.3%

□ [표 4] 우리나라의 출원인 유형별 특허 출원 현황(최근 6년)

(단위 : 건, %)

권리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상치)	비중 (19년)	(증감률)
중소기업	41,798	45,129	46,155	45,577	47,462	51,085	23.3%	7.6%
외국인(법인·개인)	46,352	46,522	45,521	45,839	47,536	47,331	21.6%	▲0.4%
개인	37,723	40,504	39,643	40,317	41,231	43,577	19.9%	5.7%
대기업	45,131	40,892	37,396	33,856	34,943	38,397	17.5%	9.9%
중견기업	11,945	11,933	10,484	10,567	10,154	10,023	4.6%	▲1.3%
기타	27,343	28,714	29,631	28,619	28,666	28,380	13.0%	▲1.0%
합 계	210,292	213,694	208,830	204,775	209,992	218,793	-	4.2%

□ [참고 자료] 특허출원과 GDP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

[MPRA Paper(2011), p.8 발췌]

Estimated Long Run Coefficients using the ARDL Approach⁴

Next we are estimating the long run coefficient using this 118 observations quarterly data for industrial production (quarterly growth of GDP per capita in G7 countries),

Dependent variable is DLYG7

118 observations used for estimation from 1964Q2 to 1993Q3

DLQG7	0.65120	2.4480[0.016]
D74	-0.25138	-1.8365[0.069]

So in long run increase in 1 percentage points in number of quarterly patents increase quarterly growth of GDP per capita by 0.65% in G7 countries. This coefficient is statistically and economically significant.